

# 강제동원 피해 판결 이행 끝내 못 보고 나주 출신 나화자 할머니 영면에 들다

향년 91세...사과·배상 못 받아 초등 6학년 때 선생님 협박 일본행 후지코시 공장서 하루 12시간 작업 국내 법원 소송 주도 2019년 승소 원고 23명 중 이제 9명 만 생존



고 나화자 할머니

마칠 수 있었다. 휴식시간은 낮 1 시간뿐이었다. 그 날 주어진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 심한 꾸중을 들어야 했고 잔업을 마쳐야 퇴근할 수 있었다.

퇴근 후 기숙사에 가서도 편히 쉴 수 없었다. 좁은 방 하나에 20명 정도가 사는 터라 잠잠을 자야 했다. 식사도 문제였다. 배가 고파 길가의 썩은 뜬어먹고 설사병에 걸려 한달여간 입원한 때도 있었다. 같이 간 친구들은 대부분 영양실조였고 친구중 한명은 결국 숨졌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에 절망했고, 배고픔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가족이 걱정할까 싶어 편지에는 '돌아가고 싶다'는 문장 하나도 쓰지 못했다.

공습 경보는 밤 낮을 가리지 않았다. 밤에 경보가 울리면 수시로 방공호에 피난을 가야 했다. 때문에 잘 때는 배낭을 어깨에 걸고 신발을 신고 자야 했다.

후지코시에 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근무 당시에도 임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삼엄한 분위기였다. 나씨는 언젠가는 줄거리 생각했지만 결국 한푼도 받지 못했다.

나씨는 1945년 10월, 일본에 간지 8개월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멀고도 가까운 타국에서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고향 땅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당시 위안부와 정신대를 구분하지 못해 고향 사람들은 나씨가 군인들에게 유린당했다고 수근댔고 결혼한 남편마저도 멸시하고 학대했다. 아들마저도 어머니의 과거를 줄게 보지 않았다. 거듭 설명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나주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나씨는 2003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의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10년 뒤 국내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이행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

한편 나씨의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2일, 장지는 경기도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故) 나화자 할머니(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지난 2003년 4월 1일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고 후지코시 공장앞에서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일제 강점기 전범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동원된 나주 출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나화자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명의 전남 출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를커녕 배상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는 20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나화자 할머니께서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나씨는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 1089명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을 시킨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제강회사(이하 후지코시)의 피해자다. 나씨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이 이행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나씨는 나주 대정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 회유에 이끌려 후지코시 도야마공장으로 끌려갔다. 담임선생님이 데려온 낯선 남자는 "후지코시에서 일하면 여학교에 진학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나씨는 부모에게 일본에 가서 일하겠다고 말했지만, 부모는 "일본에 가면 공습이 있어서 죽는다"며 만류했다.

부모의 뜻을 어길 수 없었던 나씨는 담임선생님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내가 안가면 아버지를 대신 데려간다"는 협박이 돌아왔다. 겁이 난 나씨는 결국 후지코시로 출발하는 날까지 부모에게 숨겼고 1945년 2월, 몰래 일본으로 건너갔다.

후지코시 공장은 고된 작업의 연속이었다. 선반에서 철을 깎는 작업을 했는데, 오전 6시에 기상해 오전 7시까지 출근해야 했고 밤 7시가 돼야 일을

## 당시 군수품 생산...취업·진학 미끼 1089명 강제동원 '최다'

전범기업 후지코시는

임금 지불 안하고 착취

일본 후지코시는 1928년 설립돼 산업용 로봇이나 가공 공구 및 시스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본사는 도쿄에 있지만 태평양전쟁 당시 도야마

현의 강제 공장에서 항공기의 부품과 탄피 등 주로 군수품을 생산했다.

후지코시는 1944년 6월부터 7월까지, 1945년 2월부터 3월까지 전남을 비롯한 11개 시도에서 1089명의 한국인을 강제동원하는 등 여자 근로정신대를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취업과 진학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했지만 임금은 지불하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소송 원고는 23명이며 이 중 14명이 사망, 9명만이 판결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중 광주·전남 출신은 7명이다. 여수 김계순, 순천 김정주, 나주 주금용, 광주 오경애 할머니 4명은 생존해있고 나주 나화자, 순천 이금순, 광주 성순임 할머니 3명은 영면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 ‘담양 세모녀 사건’ 두 딸 동의받고 살해?

항소심, 첫째 딸 촉탁승낙살인죄·둘째 딸 보통살인죄 적용

법원이 두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담양 세 모녀’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엄마에게 촉탁승낙살인과 일반 보통살인이라는 두가지 살인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A씨에게 적용하는 범죄 혐의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인에게 4억 여원의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3월 9일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두 딸을 살해할 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바로 ‘촉탁승낙살인죄’의 적용 여부다. 촉탁승낙살인죄란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보통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

상 징역형이지만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낮아진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을 살해한 A씨에게 모두 ‘보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은 첫째 딸 살인에 대해서는 촉탁승낙살인죄를 적용했고, 둘째 딸에 대해서는 보통살인죄를 적용했다.

첫째 딸은 죽기 직전까지 A씨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감정의 변화가 없고, 범행이 용이한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촉탁승낙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둘째의 경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엄마와 언니 없으면 잘 살수 있겠냐”는 취지로 암시를 뒤 저항을 포기한 것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기톱으로 장애인 협박한 ‘악질 이웃’

기초수급비·적금·쌀까지 갈취...서부경찰, 50대 체포

1년여에 걸쳐 홀로 사는 이웃집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를 흉기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전기톱을 들고 이웃집 할머니를 협박한 A(50대)씨에 대해 특수협박, 공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이웃집에 사는 70대 B씨 집 문 앞에서 전기톱과 흉기를 양 손에 들고 “문 열어라”, “돈 내놓으라”며 협박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테이거건을 쏘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전께 이 아파트에 이사

왔으며, B씨와는 같은 층 다른 호수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사를 후 1년 동안 흉기를 들고 B씨를 협박, B씨 앞으로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와 쌀·밀키트 등 식료품, 수백만 원 상당의 적금까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직업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특수협박 등 2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는 연인 관계로, 돈을 전해받았을 뿐 갈취한 것은 아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A씨와는 이웃 관계지 연인관계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범죄 우려를 들어 20일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피해 액수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관리 처분권 있는 조카 동의 없이 부친 묘 파내 화장한 80대 징역형

아버지의 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있는 조카의 동의 없이 아버지의 묘를 파내 화장한 8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B(66)씨와 C(여·58)씨에게는 각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한식 다음날인 4월 7일 A씨 아버지 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발굴해 현장에서 임의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남인 A씨는 호주 상속인인 조카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아버지의 묘를 발굴해달라고 B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